

출제 개요

‘사회 변동에 대한 진보와 순환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평가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사회계열 문제는 사회계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특정 주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 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설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

이를 위해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진보와 순환의 관점에서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사회 변동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서 이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들로 구성했다.

<문제 I>은 제시문의 중심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격의 글을 분류하고 통일감 있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대립적인 태도를 갖는 부류를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제시문 [나], [다], [마]는 사회 변동이 발전과 진보라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가], [라], [바]는 사회와 인간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순환적 변화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II>는 사회 변동이 진보나 순환이라는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 기준이 되는 제시문 [사]의 대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제시문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엘리트 유형의 교체로 사회 변동이 순환적이라고 보는 제시문 [가]는 사회 구성의 복잡성 때문에 엘리트 유형의 등장과 쇠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사회가 생산 양식의 변화에 따라 계급 불평등 완화의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제시문 [나]의 주장도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 고정된 법칙이 있을 수 없으며 변화의 방향도 예측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문제 III>은 다양한 패션 트렌드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각 패션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됐다.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삼원일차 연립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과정과 답을 도출할 수 있게 출제했다. 세 개의 방정식을 가정하고, 한 개의 변인을 기준으로 변인 간 관계를 계산하여야 한다. 추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된 투자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출처]

(가) 천재교육(2014), 사회·문화, p. 217.

(나) 안소니 기든스(김미숙 등 역, 2007),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 p. 31

(다) 두산백과, 플린효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2672&cid=40942&categoryId=31723>.

(라) 헤르만 헤세(송영택 역, 2013), 헤르만 헤세 시집. 문예출판사.

(마) 알렉스 보통 등(전병근 옮김, 2016). 사피언스의 미래, 모던아카이브. pp. 35-36.

(바) 한국일보(2015.2.18). 나팔바지 다시 떴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902423>

(사) 손철성(2014). 헤겔&마르크스, 역사를 움직이는 힘(지식인마을, 24). 김영사.

pp. 196-197

예 시 답 안

<논제 I>

제시문 [가]~[바]는 시간에 따른 사회 변동의 특성을 다룬 글이다. [나], [다], [마]는 사회와 인류의 변화가 발전과 진보라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가], [라], [바]는 사회와 인간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순환적 변화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는 사회 체제가 생산 양식에 의해 점진적 혹은 혁명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다]의 ‘플린효과’는 세계적으로 인간의 IQ가 매 10년마다 일정 수준 증가하는 추세임을 설명하고 있다. [마]는 세계가 인간의 건강, 및 물질적 번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가]는 엘리트의 유형을 사자형과 여우형으로 구분하고 이 두 유형이 순환적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라]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윤회사상을 담았다. [바]는 과거에 유행했던 나팔바지가 최근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497 자)

<논제 II>

제시문 [사]는 사회 변동이나 역사의 흐름이 진보나 순환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구성 요인들의 복잡한 관계 맺음에 의해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변동은 어떤 필연적 법칙이나 원리가 아닌 우연적 확률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 엘리트가 사자형과 여우형으로 번갈아 순환적으로 교체된다는 제시문 [가]는 비판받을 수 있다. 사회 지배 계층의 변화는 두 가지 유형의 교체라는 필연적 순환의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 요인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엘리트 유형이 대두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한편, 제시문 [나]는 사회 변동이 생산 양식의 변화에 따라 계급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회의 발전에는 필연적 법칙이 있으며, 사회는 이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인다고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 특별하고 고정된 법칙은 있을 수 없다. 생산 양식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사회 변동에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치며, 계급 불평등이 심화될지 완화될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지 않다. 사회 변동에 대한 일방향적 확고한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90자)

〈논제 Ⅲ〉

짧은 바지가 유행이 시작된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자. 그러면 나팔바지 유행이 시작한 시기는 짧은 바지 유행이 시작한 후 2년 후에 시작되었다. 긴치마는 짧은바지보다 3년 늦게 유행이 시작하였으므로 나팔바지보다 1년 후에 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짧은치마가 긴치마보다 1년 늦게 유행이 시작되었으므로, 짧은치마는 짧은바지보다 4년 후에 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유행은 짧은바지, 나팔바지, 긴치마, 짧은치마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나팔바지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의류기업이 2년 후에 짧은치마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유행이 순환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문 [마]는 세계가 반복적 순환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마]가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유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유행의 순서에 따라 2년 후에 짧은치마가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생산을 준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493자]